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or Children and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이 승 신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ousing, Konkuk Univ.

Professor : Lee, Seung Sin

목 차

I. 서론	IV. 결과해석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issue of children's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all households in Korea. It is certain that the issue of private education for children is the first issue among household's issues.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current pictures of household private education of Korean households. Also, whether the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effect the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 The data for this study was "the 3th Korean Labor Panal", conducted by Labor in Korea. The sample was 1950 households from the panel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s following:

1. The mean of monthly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was 149273won for all households and 217,100won for households with high school students.
2. Almost 70 % households had economic burden f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0 % households had no economic burden.
3. The factors of influencing the level of economic burden for private education were mother's education level, mother's job, the number of children, living location, monthly income, total asset of household's. The factors of influencing the amount of monthly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positively were living in Seoul, monthly total expenditure of households.
4. The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 was analyzed by socio-economic variables, household's financial variables, monthly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e level of economic burden of private education. The economic well-being were sub-categorized 4 divisions; the level of economic problem, the level of

satisfaction for household's income, the level of satisfaction for general living, the level of subject economic condition)

주제어(Key Words): 사교육비(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가계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

I. 서론

사교육비 문제는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교육에 관한 관심도는 가계의 제 1순위의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부모들은 자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자녀의 지위상승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자녀의 성공적 교육이 가계의 중요과업이 되고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특히 인적 자원을 배출한다는 의미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투자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는 점점 심화되면서 과잉교육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학력이 교육의 목표이자 결과로 오인하는 측면이 없지 않고, 일류대학 입학이 미래의 전망과 직결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2000년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공교육비가 33조 5천억인데 비해 사교육비는 3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몫이 월등히 크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측면에서 보아도 가계 총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2000년 10월 서울과 6대 광역시, 수도권 신도시의 학부모 1,220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과외교습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학부모의 84.1%가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초등학생의 91.1%, 중학생의 81.5%, 고등학생 70.2%가 과외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경향신문, 2001).

이러한 증가는 최근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

며 특히 연령이 낮은 자녀들에게 더욱 많은 사교육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은 가계의 부담감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불건전한 가치관, 계층간의 위하감등의 조성으로 사교육비 부담은 한국교육의 아킬레스근으로 기능하고 있다.

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계의 복지증진이라 할 수 있으며 가계의 구성원인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계의 제한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합리적인 소비지출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가계의 합리적인 소비는 가족원의 특성, 가치관, 목표, 그리고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소비욕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중요한 목표가 자녀 교육임에 틀림없다. 학력이 교육의 목표이자, 결과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으며, 일류대학 입학이 미래의 전망과 직결된다는 관점이 각 가정의 교육열은 과잉된 면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계는 교육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교육에의 투자에 만족하지 않고 사교육비로 가계의 소득을 무리하게 지출하고 있다. 각 가정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에 대한 지출, 그 중 사교육비의 지출이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다.

인적자본 이론에 따르면 교육은 미래의 예상되는 수익의 흐름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투자행위라 할 수 있다. 이때 교육투자의 수익률은 교육투자를 결정하고 개인의 임금 및 미래 소득 향상과 사회지위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가계는 물적자원의 확대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어 교육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사교육비의 지출 형태와 지출비용, 가계 총지출 중 사교육비의 비중, 자녀연령별로 사교육비 지출을 통하여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실태를 주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 가계의 재정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교육비의 지출이 경제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교육비 지출

최근의 보도(중앙일보, 2001)에서는 가계 지출 중 가장 많이 쓰는 부분(2개까지 응답)은 주택유지비·집세(36.4%), 세금(28.7%), 사교육비(27.7%), 공교육비(17.7%), 상환금·이자(17.5%), 축·부의금(12.2%), 통신비(11.5%), 식비(10.9%), 의료비(9.3%) 등의 순이었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하면 45.4%로 교육비가 가계 지출 중 가장 큰 비목이었다.

교육부의 과외비 관련 설문조사(초, 중고생 12,459 가구 및 교사 324명 대상)에서 1999년에 비해 2000년도의 과외비가 늘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38%이었는데 증가한 이유로 내신성적 반영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site: my.netian.com/~hakbumo/jung_edu).

통계청은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교육부문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2001)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2만1000원, 한 집 당 교육비 지출은 한달 평균 37만1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시월(1999)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학교교과목과 관련이 있는 과외비, 학원비 등은 중학교 자녀 월평균 14만원, 고등학교 자녀 월평균 19만원,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 모두를 합하여 월평균 2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교육비 중 각각, 82.3%, 76%, 75.7%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예체능, 교양을 위한 과외비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 모두를 합한 경우는 월평균 3만원이었으며, 학습지, 참고서, 문구류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1997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에서는 가구당 월평균 과외비는 18만3000원으로 소득의 8.9% 수준이었다. 비슷한 시기 한국교총과 서울대 공동 과외실태 조사에서는 학생 1인당 월평균 과외비는 초등학생이 16만9000원, 중등학생 27만2000원으로 조사됐으며, 과외비 지출 경비는 가계지출의 16.5%를 차지했다(한국일보, 1998).

김옥(1996)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고교생 중 65%가 학원이나 과외를 하였으며 그 비용은 월평균 3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왔다.

김인숙·여정성(1996)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사교육비 평균 지출액은 11만2470원이었다. 이 중 학습교육비가 6만7270원, 재능교육비가 4만5200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 소득의 평균 6.2%를 차지하였다. 또한 총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15.9%로 나타났다.

2.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들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주로 가족 및 재정관련변수, 자녀관련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가구주나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생활주기, 남편직업, 가계소득, 금융자산 등이 자녀의 인적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낮아지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연령과 첫 자녀의 연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주부연령이 높을수록, 즉 첫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부의 보살핌을 요구하는 자녀의 요구가 감소되므로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는 감소하

는 반면 금전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문숙재·김성희, 1995).

또한 막내자녀연령은 자녀를 위한 금전투자와는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시간투자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Schwenk, 1986; Turchi, 1975)

자녀의 연령증가에 따라 금전투자는 증가하고 시간투자는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김시월(1999)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사교육비지출이 더 많았다는 것과 일치한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므로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투자 및 금전투자가 증가하였다(Schwenk, 1986). 김인숙·여정성(1996)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 및 금전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계소득 증가에 따라 자녀를 위한 주부의 시간투자가 증가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진다고 한 연구들은 많았다(김인숙·여정성, 1996; 김시월, 1996; 박배진, 1997).

남편의 직업, 거주지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김시월(1999)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직업이 고용·판매·기술직보다 경영·관리직인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았으며, 거주지가 성남시보다 서울시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았다.

또한 사교육비와 사회계층의식, 직업귀천의식, 학벌주의인식 등과는 정적관계를 보여 사회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직업귀천의식과 학벌주의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허경옥, 1996).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비교연구에서는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투자능력을 나타내는 주부교육수준과 가계소득, 그리고 투자기회를 의미하는 생활주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에는 주부교육수준, 가계소득, 자녀수가 중요한 영향 변수

임을 알 수 있다. 자녀수는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및 금전투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를 위한 총지출비는 증가하나 자녀 한명을 위한 지출은 감소하였다(Espenshade, 1984; Lino, 1990; 문숙재·김성희, 1995).

3.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 경제적복지에 미치는 영향

가계의 경제적복지는 연구자에 따라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생활의 질', '경제의 안정성', '가계소득 적정도(인지)', '가정경제 안정도', '재정안정도', '재정만족도', '경제생활 만족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복지라는 개념은 경제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고 가계의 여러가지 투입물은 궁극적 산출물인 복지로 전환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복지생산을 위한 투입물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가계자원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이다. 개인이나 가계는 수많은 욕구와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을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필요로 한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각각의 소비항목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사교육비의 증가는 다른 소비지출항목의 감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소득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사교육비의 증가는 타 항목의 지출을 감소시켜 개별 소비항목의 욕구충족에 문제를 야기시킨다(박배진, 1997). 가계의 사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가계 소득의 크기나 경제규모에 비해 무리하게 할애하는 경향이 사교육과 경제적복지 수준과의 부적인 관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은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교육부문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2001). 10가구 당 7가구 이상이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22만1000원, 한 집 당 교육비 지출은 한달 평균 37만1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녀교육비가 벌이에 비해 부담스럽다고 대답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72.5%로 4년 전인 96년보

다 5.8%포인트나 늘어났다. 교육비 부담요인은 각종 과외비가 56.0%로 가장 높았다. 학교납입금 37.9%, 하숙과 자취비 2.5%, 교재비 1.7% 순이어서 사교육 비용이 가계를 주름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30대의 경우 84.8%가, 40대는 50.2%가 과외부담이 크다고 밝혀 각종 '영재교육' '유아영어교육' 등이 젊은 가정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donga.com, 2001)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에 의하면 가계 지출 비목 중 교육비가 32.1%로 가계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사 학부모의 77.5%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전체 가계의 14.5%가 부업, 은행대출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계의 저축목적이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라는 응답이 23.2%인 것을 볼 수 있다.

황덕순(1993), 김동구(1978), 이동원 외(1996), 한국소비자보호원(1997)등은 모두 가계 지출비목 중 교육비가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며 가계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동원 외(1996)에 의하면 수험생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로 인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어머니에게 질문한 결과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63.3%로 과반수 이상인 것을 나타냈다. 또한 과외·학원 등에 자녀를 보내 사교육을 행하는 학부모의 75%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과외는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출혈을 감수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부담스럽게 자리잡고 있다.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이 경제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윤성인(1997), 박배진(1997), 김시월(1999)이 있는데, 이 중 김시월(1999)은 가계의 경제적복지감은 월평균소득, 사교육비 부담감, 남편의 직업, 부인의 직업, 부인의 학력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사교육비 부담감이 많을수록 가계의 경제적복지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윤성인(1997)의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가계는 과외학습비가 가계소비지출 곤란도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그 외의 선행연구에서 가계에서의 사교육비의 부

담을 연구한 연구들이 몇 있다. 박명희(1976)는 가계에서 지불되는 사교육비 현황과 교육비지출에 수반되는 여러 요인과의 관계 및 특징을 연구한 결과 가구별 평균 교육비 지출은 21%로 나타났으며, 소득과 교육비 지출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엔젤계수로 추정된 생활수준과 교육비 지출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비를 지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시사하고 있다.

정용선(1984)은 부산시 주부를 대상으로 한 가계의 운영 실태조사에서 저축의 1차 목적으로 교육비가 55.8%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의 안정과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축을 하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간주 할 수 있으므로 가계는 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승애(1985)의 도시가정의 자녀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소득계층별로 교육비 지출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생계비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서 교육비 부담이 매우 크므로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사교육의 일부인 과외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조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7)의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수입별 차이를 나타내 '부담이 된다' 도는 '매우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89.2%), 100~200만원(84.9%), 200~300만원(81.8%), 300~400만원(74.4%), 400만원 이상(44.4%)의 순으로 나타나 수입이 감소할 경우 그 부담감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가계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높은 교육열이 가계소비지출형태에 반영되어 교육비는 가계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출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계는 총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이러한 지출은 가계소비패턴을 왜곡시키고 있으므로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교육비가 단순히 소비·지출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상당부분이 인적자본 투자라는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박배진, 1999).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사교육비 지출실태는 어떠한가?

1-1. 사교육 이용실태는 어떠한가?

1-2. 자녀의 연령별 월평균 사교육지출액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월평균사교육지출액 및 사교육경제적 부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사회인구학적변수, 가계재정변수에 따라 월평균사교육지출액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사회인구학적변수, 가계재정변수, 월평균사교육지출액에 따라 사교육경제적 부담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3. 월평균사교육지출액과 사교육경제적 부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가계 경제적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3-1. 사회인구학적변수, 가계재정변수,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사교육경제적부담 정도에 따라 가계경제적복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2. 가계경제적복지에 영향을 준 변수는 무엇이며,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분석방법론

1) 사용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인 2000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분석에 사용될 표본의 추출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추출은 “한국노동패널” 2000년도 3차 조사 data중 가구용과 개인공통data에서 필요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중 가구용data는 우선 1998년 최초 조사시부터 2000년도 3차 조사까지 3년 연속 모두 응답한 대상가계만을 하였다. 2차로 성별이 여성이고 가구주와

의 관계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이며 현재 고등학생이하의 자녀와 동거중이고 엄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엄마의 연령이 20세이상 55세이하인 가구를 선별한 결과 최종 2094개의 case가 샘플링되었다.

다음으로 개인공통data에서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변수인 사회인구학적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여성이고 가구주와의 관계가 가구주 혹은 배우자이며 연령이 20에서 55세미만의 대상자를 선별한 결과 최종 2153개의 data가 샘플링되었다.

이상으로 선별된 각각의 data에서 공통변수인 'hhid2000' 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변수의 값이 같도록 data를 통합시켜 최종 1950개의 case를 최종 조사대상 가계로 선정하였다.

3)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개념정의

사회인구학적변수	가계재정변수	사교육이용실태변수	경제적복지변수
<u>주부의 교육수준</u> <u>주부의 직업상태*</u> 1. 임금근로자(직장, 부업, 아르바이트) 2. 비임금근로자(사업, 프리랜서, 가계 등) -비교집단: 미취업 <u>주부의 직업유형*</u> 1: fulltime취업 2: parttime취업 -비교집단: 전업주부 <u>주부의 연령</u> <u>주택자가여부*</u> 1: 자가 2: 전세 3: 월세 -비교집단: 기타 <u>주택의 형태*</u>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비교집단: 비주거용 <u>출자녀수</u> <u>자녀의 학년(첫자녀기준)</u> <u>주거지역*</u> 1: 서울 2: 광역시 3: 경기 -비교집단: 기타지역	년소득 월소비 년자산 년부채	사교육기관 이용갯수 사교육주당 이용시간 사교육월 평균지출액 사교육경제 적부담감	경제적어려 움인지도 가족수입 만족도 전반적생활 만족도 주관적경제 수준

* 가변수화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N(%)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수	주부의 학력	중 졸	513(26.3)
		고 졸	1066(54.7)
		전문대졸이상	371(19.0)
	주부의 직업유형	임금근로자(직장, 부업, 아르바이트)	538(27.6)
		비임금근로자(사업, 프린랜서, 가계 등)	367(18.8)
		미취업자	1045(53.6)
	주부의 직업상태	fulltime취업	670(34.4)
		parttime취업	246(12.6)
	주부연령	35세이하	788(40.4)
		36-45세	1004(51.5)
		46-55세	158(8.1)
	주택의 자가여부	자가	77(3.9)
		전세	159(8.2)
		월세	31(1.6)
		기타	13(0.7)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60(3.1)
		아파트	129(6.6)
		연립 및 다세대	67(3.4)
		비주거용 주택	24(1.2)
자녀수	한명	676(34.7)	
	두명	1109(56.9)	
	세명이상	165(8.5)	
자녀연령	취학전(7세이하)	548(28.1)	
	초등학생(13세이하)	517(26.5)	
	중고등학생(20세이하)	577(29.6)	
거주지	서울특별시	488(25.0)	
	광역시	597(30.6)	
	경기	396(20.3)	
	기타지역	469(24.1)	
월평균 총소득	125만원이하	633(32.5)	
	126-250만원	916(47.0)	
	251만원이상	401(20.6)	
	평 균	1,815,428(원)	
가 계 재 정 변 수	월평균 총소비	100만원이하	631(32.4)
		101-200만원	929(47.6)
		201만원이상	390(20.0)
	평 균	1,582,785(원)	
총자산	350만원이하	863(44.3)	
	351-700만원	232(11.9)	
	701만원이상	855(43.8)	
평 균	23,695,850(원)		
부 채	1500만원이하	422(21.6)	
	1501-3000만원	211(10.8)	
	3001만원이상	416(21.3)	
평 균	35,992,955(원)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자녀를 둔 가계로서 1950명)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부학력, 주부의 직업유형, 주부의 직업상태, 주부연령, 주택의 자가여부, 주택의 종류, 자녀수, 자녀연령, 거주지와 총소비액, 총자산, 부채를 보았다(표 1).

2. 사교육비 지출 실태, 가계경제적 복지

1) 사교육 이용실태

조사대상 가계의 사교육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교육기관 이용갯수, 사교육 주당 이용시간, 월평균사교육 지출액, 사교육 경제적 부담정도를 보았다(표 2).

먼저 사교육기관 이용갯수를 보면 한곳정도 이용

〈표 2〉 사교육 이용 실태

사교육기관 이용갯수	이용안함 한곳 두곳 세곳이상	635(32.6) 932(47.8) 252(12.9) 131(6.7)
평 균	균	0.94
사교육주당 이용시간	10시간이하	40833(79)
	11-20시간	435(35.9)
	21시간이상	368(30.4)
평 균	균	21.96(시간)
월평균 사교육지출액	10만원이하	425(32.5)
	11-20만원	598(45.8)
	21만원이상	284(21.76)
평 균	균	149,273(원)
사교육경제적 부담정도	전혀부담되지않는다	0(0.0)
	별로부담되지않는다	94(6.9)
	보통이다	315(23.2)
	약간부담된다	494(36.3)
	매우부담된다	457(33.6)
평 균	균	3.97(5점만점)

*결측값을 고려한 빈도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3차조사(2000).

하는 경우가 47.8%, 두곳을 이용하는 경우는 12.9%, 세곳 이상은 6.7%로 나타나 전체의 67.4%는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32.6% 정도로 나타났다.

사교육 주당 이용시간은 평균 21.96시간정도로 나타났다으며, 하루평균 3시간 이상정도를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11-20시간정도 이용하는 경우가 35.9%로 가장 많고 10시간 이하정도를 이용하는 곳도 33.7%로 나타났다.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을 보면 평균 149,273원이며, 11-20만원인 경우가 45.8%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10만원이하가 32.5%이며, 21만원 이상인 경우도 21.7% 정도로 나타났다.

사교육 경제적 부담정도를 보면 전혀부담되지않는다가 0%이었다. 약간 부담된다고 한 경우가 36.3%, 매우 부담된다가 33.3%로 전체의 70%정도는 사교육비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2) 자녀의 연령별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자녀연령별로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의 평균을 보면 <표 3> 고등학생의 경우가 217,100원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중학생 174,600원, 초등학교 고학년 137,900원, 취학전 129,300원, 초등학교 저학년 118,3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월평균 사교육지출액이 217,100원으로 나타난 것은 김시월(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서울, 성남지역 고등학생의 월평균사교육지출액 240,000원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표 3> 자녀의 연령별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월평균사교육지출액 평균(원)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월평균총소비액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월평균총소득
취학전	129,300	0.15	0.09
초등학교저학년	118,300	0.07	0.07
초등학교고학년	137,900	0.08	0.09
중학생	174,600	0.08	0.10
고등학생	217,100	0.15	0.13

자료: 한국노동패널 3차조사(2000).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뿐 아니라 광역시, 기타지역을 포함하였으나 김시월(1999)은 경기와 성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연령보다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라 보인다.

또한 월 총생활비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이었으며 이를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인 경우와 취학전인 경우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사교육지출액/월평균총소득을 보면 전체적으로 9%이었으며 자녀 연령이 중학생(10%), 고등학생(13%)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김인숙·여정성(1996)은 사교육비 지출이 112,470원이며 이는 소득의 6.2%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1997)에서는 월평균사교육비는 소득의 8.9%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한국교총과 서울대 공동 조사에서는 가계지출의 16.5%가 사교육로 지출되는 결과로 나왔다.

3. 월평균 사교육지출과 사교육경제적 부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 사회인구학적변수 및 가계재정변수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지출액의 차이

사회인구학적변수, 가계재정변수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지출액을 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유형, 주부의 연령, 주택의 자가여부, 주택의 종류, 자녀수, 자녀의 연령, 거주지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계재정변수에서는 월평균총소득, 월평균총소비액, 총자산, 부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4>.

사회인구학적변수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지출액을 보면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부의 직업이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택의 자가여부에 따라서는 자가인 경우가 월평균사교육지

<표 4> 사회인구학적변수 및 기계재정변수에 따른 월평균사교육지출액 및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

변수	집단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		
		평균	평균	D	D	
사회 인구 학적 변수	주부의 학력	중졸	13.71	a	4.14	c
		고졸	14.09	a	3.96	a
		전문대졸이상	18.36	b	3.97	b
		F값	11.44***		8.49***	
	주부의 직업유형	임금근로자(직장, 부업, 아르바이트)	13.94	a	3.94	
		비임금근로자(사업, 프리랜서, 가게 등)	16.92	b	4.00	
		미취업자	14.72	a	3.97	
		F값	3.69*		3.51	
	주부의 직업상태	fulltime취업	15.23		3.88	a
		partime취업	15.60		4.18	b
전업주부		14.56		3.97	b	
F값		0.57		7.31**		
주부의 연령	35세이하	12.47	a	3.95		
	45세이하	15.78	b	4.00		
	55세이하	25.41	c	3.78		
	F값	34.40***		2.36		
주택의 자가여부	자가	17.00	b	3.77		
	전세	13.15	ab	4.01		
	월세	15.77	b	4.06		
	기타	8.75	a	3.75		
F값	3.10*		1.08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10.27	a	3.94		
	아파트	16.58	b	3.87		
	연립 및 다세대	13.44	ab	3.97		
	비주거용 주택	10.63	a	4.12		
F값	4.90**		0.39			
자녀수	한명	12.10	a	3.84	a	
	두명	14.25	a	4.02	b	
	세명이상	17.68	b	3.93	ab	
	F값	10.83***		5.02**		
자녀의 연령	취학전(7세이하)	12.93	a	3.92		
	초등학생(13세이하)	12.72	a	3.99		
	중고등학생(20세이하)	19.24	b	4.03		
	F값	29.17***		1.43		
거주지	서울특별시	18.16	c	4.25	b	
	광역시	14.25	b	3.77	a	
	경기	15.07	b	4.12	b	
	기타지역	11.89	a	3.76	a	
	F값	11.71***		27.33***		

〈표 4〉 계 속

	변 수	집 단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	
			평균	평균	D	D
가계 재정 변수	월평균 총소득	125만원이하	11.46	a	4.10	b
		126-250만원	13.96	b	4.01	b
		251만원이상	20.35	c	3.72	a
		F값	40.84***		16.79***	
	월평균 총소비액	100만원이하	11.46	a	4.02	
		101-200만원	14.13	b	3.99	
		201만원이상	20.24	c	3.86	
		F값	38.09***		2.94	
	총자산	350만원이하	13.20	a	4.02	ab
		351-700만원	12.91	a	4.13	b
		701만원이상	16.79	b	3.88	a
		F값	11.99***		6.53**	
부채	1500만원이하	13.76	a	3.93		
	1501-3000만원	13.94	a	4.02		
	3001만원이상	16.96	b	3.87		
	F값	4.31*		1.41		
월평균사교육 지출액	10만원이하			3.80	a	
	11-20만원			4.03	b	
	20만원이상			4.12	b	
	F값			12.29***		

*P<.05 **P<.01 ***P<.001

자료: 한국노동패널 3차조사(2000).

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는 사후검증 결과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주택에 사는 경우가 아파트에 사는 경우보다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낮게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는 하위검증 결과 취학전, 초등학생인 경우보다는 중고등학생인 경우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특기교육 차원에서의 사교육이 아닌 학교 교과목 관련 과외비나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검증 결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경기, 기타지역간에 차이를 보였다.

가계재정변수에 따른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을 보면 월평균총소득이 많을수록, 월평균총소비액이 많을수

록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총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 사교육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 자녀의 인적 자본 형성을 위해 많은 금전투자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또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결과라 생각된다(Schwenk, 1986). 총자산의 경우에는 사후검증결과 총자산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는 701만원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가 많을수록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채가 많은 경우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높게 나타나 사교육비는 가정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변수, 가계재정변수, 사교육지출액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경제적 부담정도의 차이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상태, 자녀수, 거주지, 월평균총소득, 총자산,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었다.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가 낮게 나타났고 주부의 직업상태에 따라서는 하위계층 결과 fulltime취업주부가 parttime취업이나 전업주부의 경우 사교육부담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수가 한명인 경우보다는 두명인 경우, 광역시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월평균총소득이 적을수록 사교육경제적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총자산의 경우에는 하위계층결과 701만원 이상인경보다는 351-700만원인 경우가 사교육경제적부담이 컸으며,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클수록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도 크게 나타났다.

3) 월평균사교육지출액 및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월평균사교육지출액과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월평균사교육지출액에 영향을 준 변수는 거주지가 서울거주(기타거주를 기준으로)이고 월평균총소비액이었다. 즉, 서울에 살수록 월평균총소비액이 높을수록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에 영향을 나타낸 변수 중 주부가 취업한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고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높을수록 경제적부담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4. 가계경제적 복지의 영향요인분석

1) 사회인구학적, 가계재정변수,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사교육경제적 부담정도에 따른 가계경제적복지

가계경제복지에 대한 하위영역을 경제적어려움

〈표 5〉 월평균사교육 지출액 및 사교육경제적 부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 수	월평균사교육 지출액	사교육경제적 부담정도
	B(β)	B(β)
주부의 연령	0.17(0.09)	-0.01(0.06)
주부의 학력	1.12(0.12)	-0.01(-0.01)
주부의 직업유형 ¹⁾		
fulltime취업	-0.18(-0.01)	0.58(0.31)**
partime취업	3.48(0.14)	0.19(0.08)
주태자가여부 ²⁾		
자 가	3.29(0.17)	-0.06(-0.03)
전 세	3.16(0.17)	-0.03(-0.02)
월 세	2.66(0.08)	0.25(0.08)
주택의 형태 ³⁾		
단독주택	-4.38(-0.16)	0.20(0.08)
아파트	0.90(0.05)	-0.17(-0.09)
연립 및 다세대	-0.02(-0.00)	-0.10(-0.05)
거주지역 ⁴⁾		
서 울	6.09(0.30)*	0.59(0.31)*
광역시	4.24(0.22)	0.43(0.23)
경 기	1.61(0.06)	0.53(0.22)
자녀수	-0.98(-0.70)	0.05(0.04)
월평균총소비액	0.03(0.26)*	-0.00(-0.13)
총자산	-0.00(-0.05)	0.00(-0.04)
부 채	-0.00(-0.08)	0.00(0.06)
월평균사교육지출액	0.00(0.04)	0.02(0.22)*
R ²	0.13	0.11

*P<.05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 3차조사(2000).

1), 2), 3), 4) 가변수화

- 1)의 비교집단: 전업주부 2)의 비교집단: 기타
- 3)의 비교집단: 비주거용 4)의 비교집단: 기타지역

인식정도, 가족수입만족도, 전반적생활만족도, 주관적경제적수준으로 구분하여, 사회인구학적변수, 가계재정변수,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에 따른 가계경제적복지를 보았다(표 6).

사회인구학적변수, 가계재정변수,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에 따른 경제적어려움 인식정도를 보면 사회인구학적변수 중에서는 주택의 자가여부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가계재정변수 중에서는 월평균총소득, 월평균총소비액, 총

〈표 6〉 사회인구학적변수 및 가계재정변수,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에 따른 가계경제적복지

	집 단	경제적어려움 인식정도		가족수입 만족도		전반적생활 만족도		주관적경제적 수준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수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	1.72	b	2.32	a	2.88	a	3.77	c
		고졸	1.66	ab	2.56	b	3.09	b	3.63	b
		전문대졸이상	1.55	a	2.80	c	3.36	c	3.36	a
		F값	1.85		39.95***		55.77***		65.42***	
	주부의 직업유형	임금근로자(직장, 부업, 아르바이트)	1.70		2.57	b	3.06	ab	3.65	
		비임금근로자(사업, 프리랜서, 가게 등)	1.64		2.42	a	3.00	a	3.60	
		미취업자	1.65		2.57	b	3.13	b	3.59	
		F값	0.30		5.07**		6.27**		2.38	
	주부의 직업상태	fulltime취업	1.65		2.50		3.04	a	3.62	
		parttime취업	1.74		2.51		3.04	a	3.64	
전업주부		1.65		2.57		3.13	b	3.60		
F값		0.63		1.73		4.84**		0.99		
주부의 연령	35세이하	1.65		2.67	b	3.19	b	3.61		
	36-45세	1.67		2.45	a	3.03	a	3.61		
	46-55세	1.64		2.47	a	2.98	a	3.58		
	F값	14.73***		0.36		18.49***				
주택의 자가여부	자가	1.98	ab	2.66		3.39	c	3.40	a	
	전세	1.58	a	2.63		3.06	bc	3.64	ab	
	월세	2.23	a	2.29		2.94	ab	3.77	b	
	기타	2.63	b	2.54		2.69	a	3.77	b	
F값	4.68**		1.69		6.64***		4.97**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1.73		2.57		3.18	b	3.73	b	
	아파트	1.85		2.66		3.24	b	3.44	a	
	연립 및 다세대	1.85		2.51		2.88	a	3.73	b	
	비주거용 주택	1.77		2.58		3.00	ab	3.71	b	
F값	0.13		0.53		4.27**		6.29***			
자녀수	한명	1.65	a	2.51		3.07		3.61		
	두명	1.64	a	2.56		3.11		3.61		
	세명 이상	1.83	b	2.50		0.20	1.07	3.64		
	F값	2.20		1.07		1.25		0.20		
자녀의 학년	취학전(7세이하)	1.57	a	2.67	b	3.20	c	3.60		
	초등학생(13세이하)	1.75	b	2.58	b	3.10	b	3.61		
	중고등학생(20세이하)	1.63	ab	2.39	a	3.00	a	3.64		
	F값	2.72		18.06***		12.25		0.71		
거주지	서울특별시	1.64		2.55		3.01	a	3.56	a	
	광역시	1.66		2.50		3.08	a	3.68	b	
	경 기	1.70		2.59		3.20	b	3.53	a	
	기타지역	1.67		2.54		3.09	a	3.64	b	
	F값	0.20		0.97		6.17***		8.05***		

<표 6> 계 속

	집 단	경제적어려움 인식정도		가족수입 만족도		전반적생활 만족도		주관적경제적 수준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가 계 재 정 변 수	월평균 총소득	125만원이하	1.83	b	2.10	a	2.80	a	3.25	a
		126-250만원	1.55	a	2.63	b	3.16	b	3.62	b
		251만원이상	1.50	a	3.03	c	3.40	c	3.83	c
		F값	13.54***		223.58***		117.88***		161.05***	
	월평균 총소비액	100만원이하	1.82	c	2.16	a	2.82	a	3.25	a
		101-200만원	1.59	b	2.60	b	3.15	b	3.63	b
		201만원이상	1.40	a	3.03c		3.37	c	3.81	c
		F값	13.66***		176.29***		95.07***		145.09***	
	총자산	350만원이하	1.77	b	2.27	a	2.89	a	3.44	a
		351-700만원	1.50	a	2.61	b	3.10	b	3.69	b
		701만원이상	1.52	a	2.80	c	3.28	c	3.76	c
		F값	10.27***		109.59***		76.85***		82.75***	
부채	1500만원이하	1.83		2.40		3.01		3.74	c	
	1501-3000만원	1.79		2.48		3.10		3.62	b	
	3001만원이상	1.77		2.48		3.12		3.48	a	
	F값	0.20		1.22		2.59		24.64***		
월평균 사교육	10만원 이하	1.66	b	2.54	a	3.10	a	3.37	b	
	11-20만원	1.64	b	2.63	ab	3.16	ab	3.56	b	
	21만원 이상	1.47	a	2.73	b	3.23	b	3.63	a	
	F값	2.39		5.13**		3.63*		19.67***		
사교육 경제적 부담정도	별로부담되지 않음	1.74		2.85	b	3.29	c	3.64	b	
	보통이다	1.46		2.84	b	3.32	c	3.56	b	
	약간부담된다	1.62		2.55	a	3.16	b	3.44	a	
	매우부담된다	1.68		2.48	a	3.00	a	3.41	a	
	F값	1.92		18.46***		17.23***		9.96***		

*P<.05 **P<.01 ***P<.001

자료: 한국노동패널 3차조사(2000).

자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월평균총소득과 월평균총소비액, 총자산이 낮을수록 경제적어려움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수입만족도에 영향을 준 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유형, 주부의 연령, 자녀의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가계재정변수 중에서는 월평균총소득, 월평균총소비액, 총자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에 따라서도 가족수

입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수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자녀의 학년에서 보면 하위검증 결과 취학전, 초등학생인 경우보다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족수입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총소득과 월평균총소비액, 총자산이 높을수록,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높을수록 가족수입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가 클수록 가족수입만족도는 낮아진다.

전반적 생활만족도에는 주부의 학력, 주부의 직업 유형, 주부의 직업상태, 주부의 연령, 주택의 자가여부, 주택의 종류, 자녀의 학년, 거주지, 월평균총소득, 월평균총소비액, 총자산,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 중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일 경우 주택이 자가인 경우, 자녀의 학년이 낮은 경우, 월평균총소득과 월평균총소비액, 총자산,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높을수록 전반적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가 클수록 전반적생활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경제적 수준에는 주부의 학력, 주택의 자가여부, 주택의 종류, 거주지, 월평균총소득, 월평균총소비액, 총자산, 부채,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월평균총소득, 월평균총소비액, 총자산,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높을수록, 부채가 적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가 클수록 주관적경제적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2) 가계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계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7> 가계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변 수		경제적어려움인식정도	가족수입 만족도	전반적생활 만족도	주관적경제적 수준
		B(β)	B(β)	B(β)	B(β)
주부의 연령		0.04(0.17)	-0.01(-0.08)	0.01(0.04)	-0.01(-0.04)
주부의 학력		-0.09(-0.07)	0.06(0.07)	0.05(0.07)	-0.15(-0.27)*
주부의 직업유형 ¹⁾	fulltime취업	-0.31(-0.14)	-0.12(-0.07)	-0.24(-0.16)	0.15(0.12)
	parttime취업	0.52(0.17)	-0.15(-0.07)	0.18(0.10)	0.05(0.03)
주택자가 여부 ²⁾	자가	-2.59(-1.17)*	-0.77(-0.45)	0.37(0.03)	-0.27(-0.23)
	전세	-2.99(-1.39)*	-0.53(-0.31)	0.13(0.09)	-0.42(0.36)
	월세	-1.81(-0.54)	-1.24(-0.41)	-0.18(-0.07)	-0.27(-0.13)
주택의 형태 ³⁾	단독주택	0.32(0.12)	-0.54(-0.22)	-0.29(-0.15)	0.25(0.14)
	아파트	0.04(0.02)	-0.37(-0.22)	-0.09(-0.07)	0.17(0.14)
	연립 및 다세대	0.32(0.13)	-0.23(-0.11)	-0.32(-0.19)	0.25(0.17)
거주지역 ⁴⁾	서울	0.33(0.14)	0.19(0.10)	0.13(0.09)	-0.29(-0.23)
	광역시	0.08(0.04)	0.09(0.05)	-0.00(-0.03)	-0.09(-0.08)
	경기	0.64(0.22)	-0.11(-0.05)	0.25(0.13)	-0.28(0.17)
자녀수		0.22(0.14)	-0.10(-0.06)	-0.12(-0.12)	0.08(0.09)
월평균총소비액		0.00(0.01)	0.003(0.34)**	0.00(0.15)	-0.00(-0.14)
총자산		-0.00(-0.28)*	-0.00(-0.01)	-0.00(-0.14)	0.00(0.12)
부 채		0.00(0.19)	-0.00(-0.01)	0.00(0.13)	-0.00(-0.28)*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		0.33(0.27)*	-0.23(-0.24)*	-0.09(0.13)	0.03(0.05)
월평균사교육지출액		-0.02(-0.20)	-0.00(-0.07)	-0.01(-0.08)	0.01(0.15)
R ²		0.27	0.15	0.15	0.20

*P<.05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 3차조사(2000).

1), 2), 3), 4) 가변수화

1)의 비교집단: 전업주부 2)의 비교집단: 기타 3)의 비교집단:비주거용 4)의 비교집단:기타지역

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변수, 가계재정 변수, 월평균사교육지출액, 사교육경제적 부담정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가계경제적 복지의 하위영역 즉 경제적 어려움 인식정도, 가족수입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 주관적경제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경제적 어려움 인식정도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자가, 전세, 총자산, 사교육경제적 부담정도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기타)인 경우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다음은 자가, 총자산, 사교육경제적 부담정도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세나 자가인 경우, 총자산이 높을수록, 사교육 경제적 부담정도가 낮을수록 경제적어려움 인식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가족수입만족도에 영향을 준 변수로는 월평균 총 소비액과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총소비액이 높을수록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가 낮을수록 가족수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경제수준에 영향을 준 변수로는 부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주부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많을수록,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적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각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문제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의 가장 중요한, 부담이 큰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가계경제와 가계재무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가계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사교육비의 지출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의 증가와 공교육의 몰락이라는 문제에 관한 교육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월평균사교육지출액 14만 9273원으로 나왔다.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는 전체의 70%정도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 취학전이나 초등학생의 경우보다 월평균사교육지출액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역이 기타 지역보다 월평균사교육지출액도 높고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가 높은 가계일수록 가계의 경제적어려움을 많이 인식하는 반면 가족수입만족도는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가계의 경제적복지에 영향을 미쳤다.

사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전인 교육 저해와 그로 인한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 저해, 입시위주 교육의 만연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운영과 학교 기능의 마비,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풍조를 들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는 사교육비의 과다지출로 인한 가정경제의 압박과 국가경제의 낭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는, 사회분화 및 계층이동의 저해,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상호불신으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와해 등을 들면서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공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가치가 높은 인적자본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자녀양육에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자녀 양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 그 중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이러한 요구와 필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소비자의 선택은 개인의 선호에 의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 의사결정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 가치관에 의존한다. 사교육에 대한 맹목적 투자와 무리한 지출이 가계의 경제규모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부담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가계의 삶의 질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가정의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제 자녀의 진학문제가 개개인의 가정문제에서 탈피하고 전체 사회적인 시각으로의 전환, 예컨대 입시제도의 안정 및 공교육 확립 등의 체계화된 실질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과외와의 전쟁”까지 선포한 정부는 98년 10월 기존의 입시준비 교육을 타파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 개혁안인 “교육비전 2002: 새 학교문화 창조” 계획과 대입무시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 개선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영·수 위주의 지필 시험을 폐지하고 각종 “소질·재능·특기”를 크게 반영하도록 입학 전형요소를 다양화하면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며 아울러 사교육비 부담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학력 및 학벌 경쟁의 원리에 맞추면서 대입 무시험제를 시행하겠다고 해도 실제로 과외를 줄여도 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가 더 이상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바꾸어 가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교교육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당국, 교사, 학부모들 각자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향신문(2001). 2001. 3. 10, 1면, 19면
- 김동구(1978). 가계 수입과 교육비 부담에 관한 연구. 사학, 8.
- 김동래(1993). 서울시 국민학교 아동의 학원 교습현황. 서울교육, 가을호.
- 김선희(1997). 사교육 유발요인과 사교육비 경감방안. 소비자문제연구, 19.
- 김성기 조동섭(1992). 교육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 한국교육정책자문회의.
- 김성희(1996). 인적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소비자학연구, 10(3).
- 김 옥(1996).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0).
- 김인숙, 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 국민일보(1994). 1994년 3월 14일자.
- donga.com(2001). 과외비 부담 크다. 통계청 조사. [경제] 2001. 5. 15.
- 문숙재, 김순미, 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 _____, 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가정의 총투자량과 영향요인: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4(5).
- 박명희(1976). 사교육비 현황과 가계. 대한가정학회지, 14(1).
- 박배진(1997).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 및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세정 이윤금(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자녀 수와 자녀 성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2).
- 윤성인(1997).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지출에 따른 재정문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일(1997). 사교육비의 개념, 증강요인 및 대책. 소비자문제연구, 19.
- 이동원의(1996). 대학입시와 한국가족, 다산출판사.
- 이승신, 김기옥, 김경자, 심 영, 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학지사.
- 정영숙(1996a).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2).
- _____(1996b). 가계의 인적자본투자율과 경제적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1).
- 중앙일보(2001). 여론조사: 경제 정책 잘못 추진, 2001년 9월 20일자.
- 한국소비자보호원(1995). 월간 소비자시대, 5월호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일보(1998). 다시 뛰는 한국: 사교육비 얼마나 늘었나. 10월 26일자, 7면.
-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 허경옥(1996).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비 측정-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연구, 8(2).
- Becker, G.S. (1975). *Human Capita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spenshade, T. J. (1984). *Investing in children - New estimates of parental expenditure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Lino, M. (1990). Expenditures on a child by husband-wife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3(3).
- Schwenk, F. N.(1986). Households with expenditures for housekeeping services, including child care. *Family Economics Review*, 2(4). 15-20.
- Turchi, B.A. (1979). *The monetary cost of a child: The economics of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 Co.
- my.netian.com/~hakbumo/jung_edu